

# 추석 특수 잡으러 '베테랑' 이 온다

영화 '베테랑2' 13일 개봉

연휴 한국 상업영화로 유일...중급 이상 영화 '0' 배급사 맞대결 피해 출혈경쟁 벌인 지난해와 대조 "명절, 더는 성수기 아냐"...경쟁작 없어 독주 예고

올해 추석 연휴 극장가에선 굵직한 한국 영화들이 관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극장가 성수기 중 하나로 꼽히는 추석에는 대개 3편 정도의 한국 영화가 맞붙어왔지만, 이번엔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2'만 출격해 사실상 '빈집 털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화계에 따르면 '베테랑 2'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3일 극장에 걸린다. 영화계 관행처럼 굳어진 수요일 개봉 공식을 깨고 금요일 개봉을 택했다. 개봉 초기 흥행 흐름을 잡지 않고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1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베테랑' (2015)의 속편이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서도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베테랑 2'를 제외하면 추석 연휴 직전 개봉작 가운데 규모 면에서 중급 이상인 한국 상업영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안녕, 할부지'와 가수 남진의 콘서트 영화 '오빠, 남진', 가족 드라마 '장손', 성소수자 딸을 둔 중년 여성의 이야기 '말에 대하여' 등이 극장에 걸리지만,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작품들이다.

연휴에 한국 상업영화가 자취를 감춘 이 같은 모습은 이른바 '텐트폴'로 분류되는 영화들이 잇따라 나오던 예년 추석 극장가 풍경과는 대조적이다.

'베테랑 2'라는 강적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각 배급사가 비슷한 시기 개봉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테랑 2'는 올해 한국영화 라인업에서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힌다. 1편의 영광을 등에 업은 데다 지난 5월에는 제77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다. 여기에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주가를 높인 배우 정해인이 새로 합류해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베테랑 2가 칸영화제에 갔을 무렵부터 추석이 개봉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개봉 3개월 전인 6월에 개봉일을 발표했다"며 "이런 영화가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하고 홍보하는 상황에서 다른 배급사들이 신작을 꺼내 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상업영화 3편이 한달 개봉해 출혈경쟁을 받았다가 빈손으로 퇴장한 지난해 추석 연휴의 '학습효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연휴 직전 '전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1947 보스톤', '거미집'이 한달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 편 모두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두어 달가량의 여름 시장도 이전 성수기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때에 이보다 기간이 훨씬 짧은 추석이나 설 연휴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관객도 예전처럼 많이 몰리지 않는다"며 "작년 추석은 6일이 연휴였는데도 3편 모두 실패했는데, 올해는 5일로 짧아져 더욱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민

▼정해인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등 외국 영화도 미망한 경쟁작이 없어 최소 9월 말까지는 '베테랑 2'가 극장가를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화는 개봉이 2주 남은 30일 예매 관객 수 6만2000여 명을 기록해 예매율 2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 K팝도 딥페이크 비상

권은비·브브걸 前 멤버 유정 등 피해 호소 각 기획사, 모니터링 강화...팬 제보 당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 큰 논란으로 부상한 가운데 가요계도 K팝 스타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걸그룹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오후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YP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수 권은비 역시 최근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 음란 사진을 유포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소속사 율리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정한 바 있다"며 "(이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브브걸 전 멤버 유정은 지난 2월 tvN '일상의 지식: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지인 제보로 내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르세라핌 '크레이지' 빌보드 진입 노린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K팝 걸그룹 중 첫날 200만 스트리밍 유일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크레이지'(CRAZY)가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발매 첫날 2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빌보드 차트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1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개된 '크레이지'는 발매 당일 스포티파이에서 203만6516회 재생되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61위를 기록했다.

올해 발표된 K팝 걸그룹 노래 가운데 스포티파이에서 발매 첫날 200만회 넘는 재생수를 기록한 곡은 '크레이지'가 유일하다. '크레이지'는 특히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57만7913회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해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 66위로 진입했다.

'크레이지'는 첫날 스트리밍 성적으로 전작 '이지'(EASY)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기록한 일일 최대 스트리밍 횟수인 53만 5924회를 넘겼다.

소속사는 "'이지'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정훈희, 청춘에 노래로 전하는 위로

신보 '흔들리며 피는 꽃' 발매

데뷔 60주년을 바라보는 가수 정훈희(사진)가 27일 디지털 싱글 '흔들리며 피는 꽃'을 발매했다고 소속사 테이코노트가 30일 밝혔다.

'흔들리며 피는 꽃'은 파란만장했던 가수 인생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을 보듬는 곡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라는 구절로 유명한 도중환 시인의 동명 작품을 인용한 가사에 정훈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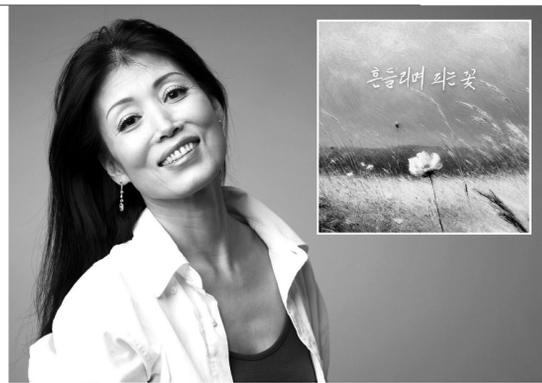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를 더했다.

정훈희가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2022년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안개'를 리메이크한 이후 2년 만이다.

그는 "항상 우아하지만 한 인생도 없듯 처절하게 고통으로만 가득 찬 인생도 없다"며 "잔란히 피어나 빛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지금의 불안정과 불확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밝혔다.

정훈희는 1967년 '안개'를 발표하고 17세의 나이로 데뷔해 2027년 데뷔 60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